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일정 등

ALL ABOUT LAW SCHOOL

로 스 쿨 인 사 이 드

KNU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들어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어
잘못을 심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과도기에 있다.
디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눈을 가렸듯이 우리도
서로의 이익과 명분만이 아닌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이다.

**"법조인은 시험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양성되어야 한다."**

CONTENTS

PART. 01 법학적성시험(LEET)이란?

04 법학적성시험 개요
06 각 영역의 문항 유형 소개
18 법학적성시험 개선 계획
19 자주하는 질문
20 LEET 고득점 수기

PART. 02 ALL ABOUT LAW SCHOOL

22 로스쿨 개요
24 교육과정 소개
26 장학금 제도
28 특별전형 / 지역균형인재
29 실무교육
30 변호사 시험
31 로스쿨 졸업생의 사회 진출
32 로스쿨 합격 노하우 ①
34 로스쿨 합격 노하우 ②

36 [붙임자료]

발 행 일 2017년 4월
등 록 번 호 2289-0262
발 행 인 이형규 이사장
편집 · 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 행 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 자 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 쇄 삼화인쇄(주)

법학적성시험 개요

1. 법학적성시험(LEET) 이란?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법학적성시험 결과의 활용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정에 따라 학부 성적, 어학 성적,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등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요소의 하나로 활용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3. 시험 일시 및 장소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7. 8. 27.(일)에 실시함.

※ 2019학년도 시험부터는 수험생 진학준비 등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7월에 실시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 2018년 2월 공지)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하여야 한다.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함.
- '서울'의 경우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지망, 2지망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학교별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한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험표 출력 시(8.8.~27.) 배정된 학교 확인

4.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문항형태
1	언어이해	35	09:00 ~ 10:20 (80분)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35	11:00 ~ 12:50 (110분)	5지선다형
점심시간			12:50 ~ 13:50	
3	논 술	2	14:00 ~ 16:00 (120분)	서답형
계	3개 영역	72문항	310분	

5.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주요일정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2017. 3. 2(목)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공고	
2017. 7. 4(화) ~ 7. 13(목)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LEET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17. 8. 8(화) ~ 8. 27(일)	수험표 교부	시험당일 지참
2017. 8. 27(일)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2017. 9. 19(화)	성적발표	LEET 홈페이지

※ [참고] 개선계획에 따른 2019학년도 시험의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2018년 7월 실시)

교 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비 고
1	언어이해	30	09:00 ~ 10:10 (70 분)	5문항 · 10분 감소
2	추리논증	40	10:45 ~ 12:50 (125분)	5문항 · 15분 증가
3	논 술	2	14:00 ~ 15:50 (110분)	10분 감소
계	3개 영역	72문항	305분	5 분 감소

6. 법학적성시험 점수 체제

성적 제공: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백분위만 제공.

논술은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함.

– 영역별 합산점수는 발표하지 않으며,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표준점수: 표준점수는 원점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로서, 원점수의 분포를 영역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도록 변환한 분포 상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 백분위 : 백분위는 영역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로서,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는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이다.

각 영역의 문항 유형 소개

1. 언어이해

❶ 출제 기본방향

-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함

❷ 문항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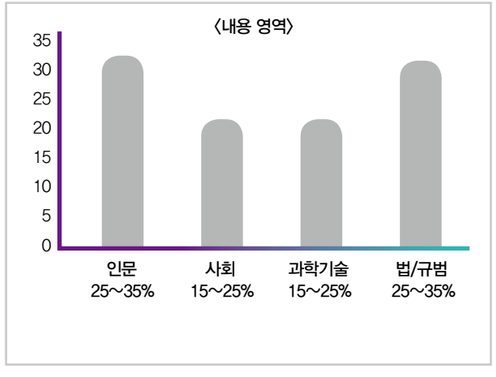
＊ 내용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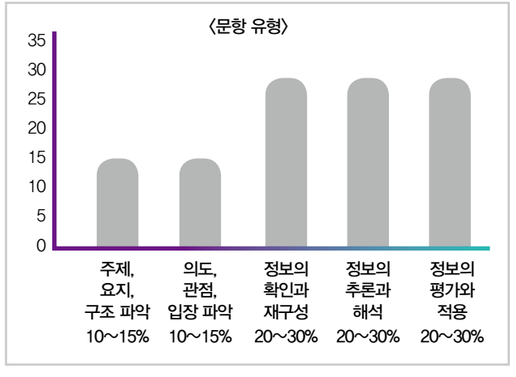
인문 인간의 본질과 문화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적 텍스트

과학 기술 자연 현상, 기술 공학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사회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법 · 규범 법과 윤리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 문항 유형

주제, 요지, 구조 파악

- 제시문 전체 또는 부분의 주제, 중심 생각과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 문장이나 문단과 같은 부분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역할을 고려하여 제시문 전체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의도, 관점, 입장 파악

- 글쓴이 또는 제시문에 소개된 인물이 가진 의도, 관점, 입장, 태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 및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른 표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정보의 추론과 해석

- 제시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통하여 정보가 가지는 적합한 의미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정보의 평가와 적용

- 제시문에 주어진 논증이나 설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제시문에 소개된 원리를 새로운 사례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❸ 문항 해결 방법

주제 파악

- 글의 주제를 파악함.

글의 논리적 전개 방식 파악

- 제시문의 각 문단이 전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판단함
- 일반적인 논리 전개 방식
  1) 주제 소개
  2) 논의가 될 첫 번째 주장이나 가설 설명
  3) 반론과 반론에 대한 대응
  4) 저자의 최종적인 주장 및 근거 제시

문항을 읽고 정답 찾기

- 각 문항을 읽고 정답을 찾음
- 세부 정보의 확인을 요구하는 문항을 해결할 때는 필요하다면 제시문의 해당 부분을 다시 읽고 문항을 해결함

2. 추리논증

❶ 출제 기본방향

-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함

❷ 문항 유형

* 내용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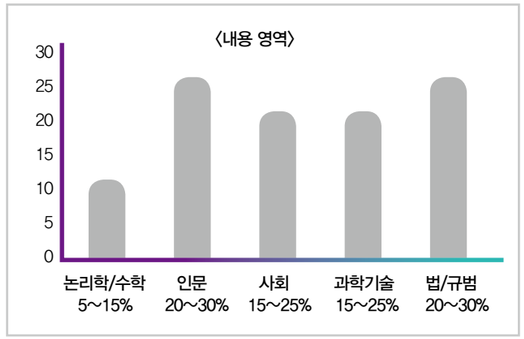
논리학 · 수학 ※하단 참고

인문 인간의 본질과 문화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적 텍스트

사회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과학 기술 자연 현상, 기술 공학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법 · 규범 법과 윤리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문항 유형〉

추리 40~60%		논증 40~60%		
언어 추리	모형 추리	논증 분석	논쟁 및 반론	평가 및 문제해결

※ '논리학 · 수학'은 추리 문항의 해결에 필요한 원리를 제공해 준다는 중요성과 추리 문항에서 다루는 소재 중 인문, 사회, 과학기술, 법 · 규범에 속하지 않는 일상적 소재를 분류상 포함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 때문에 모형추리 영역에서만 '인문' 영역과는 별도의 영역으로 분류함

* 문항 유형

추리 (40~60%)	언어 추리	함축 및 귀결	• 제시문의 정보로부터 함축되는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함
		원리 적용	• 규범 및 규칙이나 일반 원리를 해당되는 사례에 적용하여 올바로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함
		사실관계 추리	• 부분적인 정보나 증거가 주어질 경우 이로부터 특정한 사실관계를 추리하거나 특정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함
	모형 추리	형식적 추리	• 주어진 전제들로부터 형식논리의 추론규칙을 이용해서 연역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거나, 어떤 주어진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전제를 찾는 능력을 측정함
		논리 게임	• 제약조건 하에서 올바르게 항목을 배열하거나 연결하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제시된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수리 추리	• 수, 도형, 표, 그래프로 표현된 비언어적 정보로부터 추리나 간단한 수리 연산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함

논증 (40~60%)	논증 분석	명시적 요소 분석	• 논증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장들 중에서 전제들과 결론을 찾아내고, 전제들이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암묵적 요소 분석	• 논증이나 추리과정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략된 전제들을 찾아내어 완전한 논증이나 완전한 추리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구조 분석	• 논증 전체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논쟁 및 반론	논쟁 분석 및 평가	• 논쟁의 쟁점을 파악하거나 공통의 가정 내지 전제를 파악하며, 논쟁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반론 구성	• 주어진 논쟁의 상황에 참여하여 한쪽 입장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오류	• 잘못된 논증을 분석하여 논증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평가 및 문제 해결	논증 평가	• 주어진 논증의 적절성과 설득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강화 또는 약화	• 새로운 정보나 증거의 추가가 기존의 논증을 강화 또는 약화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문제 해결	• 옳다고 믿는 가설과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어떤 상황을 예측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예측이 틀린 역설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❸ 문항 해결 방법

1) 추리

* 원리 적용

규칙과 사례 파악

- 규칙을 먼저 파악한 후 사례를 파악함
  - 규칙은 보통 여러 하위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예외 조항이 덧붙여진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각 사례에 적용되는 하위 규칙이나 예외 조항을 체계적으로 이해함

» **사례에 적용 가능한 규칙의 판단**

- 각 사례에 어떤 (하위/예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함

» **적용 결과 추리**

- 규칙을 사례에 적용하여 나오는 결과를 추리함

＊ 논리 게임

그림이나 표 그리기	규칙을 그림/표에 나타내기	추리하기	선택지 중 정답 찾기
• 주어진 정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나 표를 작성함 • 그림이나 표 위에 사실 정보를 기록함	• 규칙을 글이나 기호로 간결하게 표현함	• 규칙과 사실 정보를 결합하여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추리함 • 새롭게 추리된 정보도 그림이나 표에 빠짐없이 표현함	• 추리된 정보가 빠짐없이 표현된 그림이나 표를 보고 정답을 찾음

2) 논증

＊ 논증 분석

결론 찾기	전제들을 찾기	전제들 간의 논리적 관계 파악하기
• 논증의 구조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효과적임	• 결론을 찾은 후, 결론을 지지하는 전제를 찾음	• 어떤 전제가 어떤 다른 전제를 지지하는지 파악함 • 전제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함

＊ 논쟁 및 반론

논쟁점 파악	논쟁의 논리적 전개 파악	문항 해결
• 논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함	• 논쟁점과 관련하여 논쟁의 논리적 전개를 파악함 • 논쟁 속에서 각 진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른 진술들과 어떤 논리적 관련을 가지는지 파악함	• 논쟁 분석: 논쟁의 논리적 전개 파악을 참조하면 거의 직접적으로 문항 해결이 가능함 • 반론 구성: 논쟁의 논리적 전개 파악에 기초하여 가능한 반론을 선택지에서 찾음

＊ 강화 또는 약화

가설 확인하기	증거 확인하기	강화 또는 약화 판단하기
• 문제되는 가설을 분명하게 파악함	• 제시문이나 선택지에 제시된 새로운 증거를 확인	• 다음 원리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주어진 가설을 강화 또는 약화하는지 판단함 – 새로운 증거가 주어진 가설이 참일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실험결과임 ▶ 새로운 증거가 가설을 강화함 – 새로운 증거가 주어진 가설이 거짓일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실험결과임 ▶ 새로운 증거가 가설을 약화함

3. 논술 영역

❶ 출제 기본방향

-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 · 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함
-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함으로써 법학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강조되는 방식의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함

❷ 문항 유형

＊ 문항 분류표

내용 영역 \ 문항 유형	사례형	분석 · 추론형	비판 · 평가형	적용 · 발전형
인문				
사회				
법 · 규범				

1) 내용 영역

- 인문 : 인간의 본질과 문화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적 텍스트
- 사회 :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 법 · 규범 : 법과 윤리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2) 문항 유형

- 사례형 : 사례 분석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함
- 분석 · 추론형 : 제시문의 주장과 논거 및 논증과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결론을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함
- 비판 · 평가형 : 제시문의 논증을 합당하게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함
- 적용 · 발전형 : 제시문을 바탕으로 삼아 발전적 논의를 전개하는 능력을 측정함

(※ 2019학년도부터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됨에 따라, 문항 분류표 변경 예정임)

[언어이해] 문항 풀이 (2017학년도 4~6번)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개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다거나 또는 한 개인의 복지 수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할 때,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인간 복지의 본성이나 요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도덕철학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쾌락주의적 이론'은 긍정적인 느낌으로 구성된 심리 상태인 쾌락의 정도가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고 본다. 어떤 개인이 느끼는 쾌락이 증진될 때 그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둘째, '욕구 충족 이론'은 개인이 욕구하는 것이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 복지 수준이 결정된다고 본다. 어떤 개인이 지닌 욕구들이 좌절되지 않고 더 많이 충족될 때 그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셋째, '객관적 목록 이론'은 개인의 삶을 좋게 만드는 목록을 기준으로 그것이 실현되는 정도에 따라 복지 수준이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한 목록에는 통상적으로 자율적 성취, 지식, 친밀한 인간관계, 미적 향유 등이 포함되는데, 그것의 내재적 가치는 그것이 개인에게 쾌락을 주는지 또는 그것이 개인에 의해 욕구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 중에서 '쾌락주의적 이론'과 '객관적 목록 이론'은 어떤 것들이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 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복지 이론이며, '욕구 충족 이론'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복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 이론들 중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욕구 충족 이론'이다. 그들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복지 수준의 높고 낮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복지의 증가에 해당한다고 믿는 모든 활동과 계기들이 쾌락이라는 심리 상태를 항상 동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쾌락주의적 이론'은 복지에 관해서 너무 협소하다고 비판하면서 더 개방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욕구의 대상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구현 사실이 인식되어 개인들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이론의 옹호자들은 '객관적 목록 이론'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복지 목록에 있는 항목들이 대체로 개인들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항목들이 복지에 기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들이 실제로 욕구하는 것들 중에는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복지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 충족 이론'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욕구의 충족과 복지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욕구의 충족이 복지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정보의 부족이나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쁜 것을 욕구할 수 있으며, ㉠타인의 삶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복지 증진과는 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가학적 욕구와 같은 반사회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셋째, ㉡개인이 일관된 욕구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욕구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욕구 충족 이론'을 버리고 다른 복지 이론을 수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 이론을 변형하는 방식도 있다. '욕구 충족 이론'과 구별되는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은 개인들이 가진 모든 욕구들의 충족이 아니라, 관련된 정보에 입각하여 타인이 아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욕구의 충족만이 복지에 기여한다고 본다. 이것은 사람들이 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이론은 '욕구 충족 이론'이 봉착한 난점들을 상당히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어떤 욕구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만약 이 이론의 옹호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시도한다면 이 이론은 형식적 복지 이론에서 실질적 복지 이론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

4. 윗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쾌락주의적 이론'은 개인의 쾌락이 감소하면 복지도 감소한다고 본다.
② '욕구 충족 이론'은 개인들 간의 복지 수준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고 본다.
③ '객관적 목록 이론'은 쾌락이 증가하더라도 복지 수준은 불변할 수 있다고 본다.
④ '객관적 목록 이론'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것들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
⑤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은 모든 욕구의 충족이 복지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답] ②
[문항유형] 법 · 규범 – 의도, 관점, 입장 파악
[난이도] 중

5. '욕구 충족 이론'의 관점과 부합하는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복지 증진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ㄴ.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는 그 전후로 개인의 심리 변화를 유발하지 않아도 된다.
ㄷ. 미적 향유가 복지에 기여한다면 그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정답] ⑤
[문항유형] 법 · 규범 –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난이도] 중

6. 〈보기〉의 사례들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갑'은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의 질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였는데, 그 후에 그를 다시 만난 적이 없어서 그의 질병이 나았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그의 질병이 나았다는 사실은 갑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나)'을'은 A학점을 받기 위해 시험 전날 밤에 밤새워 공부하기를 원하면서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 밤늦게까지 파티에 참석하기도 원한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다.

(다)'병'은 인종 차별적 성향 때문에, 의약품이 더 필요한 흑인보다는 그렇지 않은 백인에게 의약품을 분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백인에게만 그 의약품을 분배하였다.

① (가)는 '욕구 충족 이론'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② (가)는 '쾌락주의적 이론'과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 모두의 관점에서는 갑의 복지가 증진된 사례로 활용할 수 없겠군.
③ (나)는 '욕구 충족 이론'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④ (나)에 나타난 갈등은 항목들 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은 '객관적 목록 이론'에서는 해결하기 어렵겠군.
⑤ (다)는 '욕구 충족 이론'의 관점에서는 병의 복지가 증진된 사례가 될 수 없겠군.

[정답] ⑤
[문항유형] 법 · 규범 –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난이도] 중

[추리논증] 문항 풀이 (2017학년도 5번)

5.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K국 형법은 "미성년자를 약취(略取)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미성년자약취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약취'라고 하는 것은 폭행 · 협박을 행사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미성년자를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약취행위자나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의 해석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견해가 나뉜다.

〈견해 1〉
미성년자약취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法益)은 미성년자의 평온 · 안전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평온 ·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거소를 옮기는 행위만으로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상의 힘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견해 2〉
미성년자약취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미성년자의 자유와 보호자의 보호 · 양육권이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거소를 옮기는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상의 힘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보기]

ㄱ.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부모 중 다른 일방이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라면, 위의 어떠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ㄴ.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부(父)가 모(母)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 않고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적절히 한 경우, 〈견해 1〉에 따르면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보호 양육하던 미성년자를 종전에 거주하던 K국 거주지에서 부의 동의 없이 모가 국외로 이전하는 행위로 인해, K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생활환경 등이 전혀 다른 외국에서 부의 보호 양육이 배제된 채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겪는 경우, 〈견해 1〉에 따르면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견해 2〉에 따르면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문항유형] 법 · 규범 – 원리적용(추리)
[난이도] 하

[추리논증] 문항 풀이 (2017학년도 21번)

21.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래 배치도에 나와 있는 10개의 방을 A, B, C, D, E, F, G 7명에게 하나씩 배정하고, 3개의 방은 비워두었다. 다음 〈정보〉가 알려져 있다.

1호		6호
2호		7호
3호		8호
4호		9호
5호		10호

[정보]

- 빈 방은 마주 보고 있지 않다.
- 5호와 10호는 비어 있지 않다.
- A의 방 양옆에는 B와 C의 방이 있다.
- B와 마주 보는 방은 비어 있다.
- C의 옆방 가운데 하나는 비어 있다.
- D의 방은 E의 방과 마주 보고 있다.
- G의 방은 6호이고 그 옆방은 비어 있다.

① 1호는 비어 있다. ② A의 방은 F의 방과 마주 보고 있다.
③ B의 방은 4호이다. ④ C와 마주 보는 방은 비어 있다.
⑤ D의 방은 10호이다.

[정답] ⑤
[문항유형] 논리학 · 수학 – 논리게임(추리)
[난이도] 중

[추리논증] 문항 풀이 (2017학년도 34번)

34. (A)와 (B)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다섯 가지 기본적인 맛인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을 느낄 수 있으며, 이 맛들은 미각세포에 존재하는 맛 수용체에 의해 감지된다. 많은 포유동물들은 단맛과 감칠맛을 선호하는데, 일반적으로 단맛은 과일을 포함한 식물성 먹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칠맛은 단백질 성분의 먹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맛과 감칠맛과는 달리, 쓴맛은 몸에 좋지 않은 먹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람과 달리 고양이는 단맛을 가진 음식을 선호하지 않는데, 고양이의 유전자 분석 결과 단맛 수용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육식동물로 진화한 고양이는 단맛 수용체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아도 사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진화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즉, (A)생명체는 게놈의 경제학을 통해 유전자가 필요 없을 경우 미련 없이 버린다는 것이다.

이후 연구자들이 진화적으로 가깝지 않은 서로 다른 종에 속하는 육식 포유동물들의 단맛 수용체 유전자를 연구한 결과, 단맛 수용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단맛 수용체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단맛 수용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자리는 종마다 달랐는데, 이는 서로 다른 종의 동물들이 육식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동물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즉, 단맛 수용체 유전자의 고장은 수렴진화의 예로서, (B)진화적으로 가깝지 않은 서로 다른 종의 생물이 적응의 결과, 유사한 형질이나 형태를 보이는 모습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보 기]

ㄱ. 진화적으로 서로 가깝지 않은 다른 종의 잡식동물인 집돼지와 불곰은 쓴맛 수용체 유전자의 개수가 줄어든 결과로 보다 강한 비위와 왕성한 식욕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A)를 약화하고 (B)를 강화한다.

ㄴ. 진화적으로 서로 가깝지 않은 다른 종의 육식동물인 큰돌고래와 바다사자는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키는 형태로 진화한 결과로 단맛 수용체 유전자뿐 아니라 감칠맛 수용체 유전자에도 돌연변이가 일어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A)와 (B) 모두를 강화한다.

ㄷ. 사람과 오랑우탄의 공동조상은 과일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결과로 비타민C 합성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진화적으로 서로 가까운 사람과 오랑우탄이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A)를 강화하고 (B)를 약화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문항유형] 과학기술 – 강화 또는 약화(논증)
[난이도] 중

[논술] 문항 풀이 (2016학년도 1번)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C의 입장에서 A, B 두 입장을 모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이 때, 두 입장이 〈보기〉의 두 논제에 관하여 각각 어떤 주장을 제시할지 밝히고 이를 비판하는 순서로 작성하시오. (900 ~ 1200자, 40점)

현재의 애국가는 1936년 안익태가 작곡하였다. 가사는 윤치호가 지었다는 설이 있으나, '애국가작사자 조사위원회'는 1955년 작사자 미상으로 결론지었다. 안익태에게 작곡자로서의 음악 저작권이 있는 애국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로 사용되었는데, 1965년 안익태가 스페인에서 사망한 이후로는 그곳에 남아 있는 유족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유족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위탁하였고, 이 협회를 통해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익태가 애국가를 작곡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애국가가 저작권의 대상이라는 것과 안익태의 유족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2003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경기장에서 애국가를 연주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축구 구단들을 고소하면서 애국가의 저작권 문제가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의 국내 법령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였고, 따라서 2015년까지는 유족에게 저작권이 보장된 상태였다. 그러나 2002년 한 · 일 월드컵을 경험한 국민들은 온 국민이 사랑하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창하는 애국가에 과연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일각에서는 국가를 바꾸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하였다. 이 문제는 안익태의 유족들이 애국가의 저작권을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무상 기증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되었다. 애국가와 같이 공공의 사용이 중요한 저작물에 관해 개인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세 입장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저작물의 성격을 불문하고 저작권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A 입장), 둘째, 저작물의 성격과 관계없이 아예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B 입장), 셋째, 수용 및 보상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C 입장)이다.

[보 기]

○논제 1: 창작자의 노고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논제 2: 문화의 향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문항유형] 법 · 규범 – 분석 · 추론, 비판 · 평가 (혼합)
[난이도] 중

법학적성시험 개선 계획

※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정량 평가 비중이 강화됨에 따라 법학적성시험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2016년 12월 발표함. (LEET 홈페이지 www.leet.or.kr 공지사항 참조)

1. 2018학년도: 현행 72문항 310분 유지

❶ 언어이해: 변경 사항 없음

❷ 추리논증: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 비중 높임

❸ 논술: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

2. 2019학년도 이후: 72문항 305분으로 변경

❶ 언어이해

- 문항 수 변경: 현행 11제시문 35문항에서 10제시문 30문항으로 변경
- 시험 시간 변경: 현행 80분에서 70분으로 변경

❷ 추리논증

- 문항 수 변경: 현행 3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변경
- 문항 비중 조정: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 확대 출제
- 시험 시간 변경: 현행 110분에서 125분으로 변경

❸ 논술

- 문항 유형 변경: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
- 시험 시간 변경: 현행 120분에서 110분으로 변경

자주하는 질문

Q 법학적성시험을 혼자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평소에 좋은 글을 많이 읽고 쓰는 습관을 가지면 기초적인 준비로 충분할 것입니다.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는 법학적성시험 기출문제를 시험 시간 내에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고, 여러 번 다시 풀면서 자신이 왜 틀렸는지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서 1년 이상 수업을 들었는데, 별로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협의회에서는 법학적성시험 준비생을 위한 시험 기본서를 발간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A 협의회에서는 매년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 해설서는 실제 시험 출제위원들이 작성한 출제근거자료에 기반을 두고 집필되었습니다. 시험을 대비하실 때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법학적성시험의 문제 유형별 풀이 원리와 방법을 소개한 『법학적성시험 안내서』도 작년 7월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많은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을 일찍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늦게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 괜찮은지요? 시험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요?

A 언제부터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준비가 늦다 해도 열의와 집중력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정답이 정답인 이유와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LEET 고득점 수기

박기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로 재학 중인 박기현입니다. 이 글을 제가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법학적성시험의 성적에는 제 노력 뿐 아니라 당일의 컨디션과 운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공부 요령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리트 시험을 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저의 공부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려 합니다. 이후의 글에서는 제가 시험을 준비한 과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영역별로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과 스터디, 시험 직전 대비 등 기타 학습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Ⅱ. 시험준비과정

저는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 언어이해 영역 35개, 추리논증 영역 31개를 맞추어 149점의 표준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저는 법학적성시험에 2회 응시하였는데 두 번째 시험을 본 해에는 여름 방학 때 기출을 다시 한 번 풀어보는 정도로 대비하였으므로 첫 번째 시험 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에 처음으로 기출문제 한 세트를 풀어본 후 언어이해 영역에 비하여 추리논증 영역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한 저는 남은 방학 기간에 시중에 판매되는 추리논증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개학 이후 3~5월에는 친구들과 스터디를 꾸려 리트 기출문제, PSAT 기출문제를 한 주에 한 번씩 만나 풀어보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학교의 수업과 스터디를 병행하느라 문제풀이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약 두 달여 앞둔 여름방학부터는 아침9시부터 리트 기출문제 1세트를 풀고 점심을 먹은 후, 약 2시간 동안 오전에 푼 문제의 풀이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시험 2주 전부터는 친구들과 따로 스터디를 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시간에 맞추어 다시 풀어보며 시간분배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지문에 대한 감을 익혔습니다.

Ⅲ. 영역별 공부방법

1) 활용교재 및 문제

저는 리트 기출문제와 PSAT 기출문제 중 자료해석을 제외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고 PSAT이나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선지를 구성하는 기출문제의 방식에 대한 감이 흔들릴 수도 있고 어려운 사설 모의고사 문제나 관련성이 크지 않은 PSAT문제를 풀며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재는 추리논증 기본 강의를 한 번 수강하면서 그 수업의 교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 언어이해 영역

진부한 말이지만 지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독해할 수 있어야 언어이해 영역에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지문을 독해하고 문제를 풀면서 세 가지 정도에 주의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확실히 고득점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기출문제의 지문을 여러번 독해하면서 기출지문의 구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과학기술분야의 지문 중에는 어떠한 현상이나 기술의 발생, 작동과정을 일련의 순서로 서술한 구조도 있고, 법학과 관련한 지문 중에는 특정한 이론 내의 개념들 간 상관관계를 서술한 구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201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영역 [21-23] 지문은 후자의 구조일 것입니다. 이렇게 각 분야 지문마다 구조를 염두에 두고 연습했더니 생소한 분야의 지문이 나와도 조금 더 빠르게 독해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오답의 근거로 삼은 지문의 문단을 찾고, 해설을 보며 내가 어떻게 오독을 하였는지 점검하는 과정은 조금 더 정확한 독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염두에 둔 것은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로 구성될만한 부분을 암기하거나 체크하는 것입니다. 언어이해영역의 지문은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대립되는 학설이 설명되는 문단이나 핵심 개념을 분류하여 설명하는 문단 등이 나왔을 때 자기가 알 수 있는 표현으로 빨리 정리하거나 대충이라도 암기하고 가는 연습을 하면 문제를 푸는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추리논증 영역

저는 추리논증 영역이 다 어려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수리추리 문제와 주어진 설명에서 일정한 사실을 추론하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수리추리문제는 인터넷 기본강의를 통해서 잊고 있었던 간단한 방정식 풀이나 도표를 만들어 푸는 방법 등을 숙지하였습니다. 추론문제는 기출문제의 해답이 추론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기출문제의 설명과 선지 간의 연결을 반복적으로 공부하였는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Ⅳ. 기타 학습방법

1) 스터디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하였는데 오전에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영역을 시험시간에 맞추어서 푼 뒤 친구들과 답을 맞추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답을 맞추어보기 전 미리 채점을 하거나 해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마다 답을 찾은 지문의 근거를 친구들과 토의하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인지를 고민해 본 다음 나중에 해설을 보고 답을 확인했습니다. 해설을 보고 공부하면 그 문제의 답은 알 수 있지만 다른 지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습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 시험직전대비

시험 2주 전에는 스터디를 따로 하지 않고 리트 기출문제만 시험시간에 맞추어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시간에 맞추어 풀면서 모든 답의 근거를 찾으면서 푼 것인지를 체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키울 수 있었고 문제 해결방법을 마지막으로 숙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로 시간 관리를 해보고 싶을 때는 의치학대학원 입학시험의 언어추론 문제를 가끔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시험 당일 날 아침에는 감을 살리기 위해 기출문제의 지문만 시험 시작 전에 몇 개 정도 읽어보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Ⅴ. 마치며

제가 법조인이 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온 이유는 자아실현과 사회에 대한 봉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공부가 버거울 때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뚜렷이 보인다고 느낍니다. 로스쿨 입학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지만 하나하나 차분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시험 잘 보셔서 꼭 목표하시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스쿨 개요

입학정원

정부의 엄격한 설치인가 심사를 거쳐 2008년 전국의 총 25개 대학(정원 2,000명)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됐다.

구 분	수도권 (15개교)	지방권 (10개교)
국공립대	강원대(40), 서울대(150), 서울시립대(50)	경북대(120), 부산대(120), 전남대(120), 전북대(80), 제주대(40), 충남대(100), 충북대(70)
사립대	건국대(40), 경희대(60), 고려대(120), 서강대(40), 성균관대(120), 아주대(50), 연세대(120), 이화여대(100), 인하대(50), 중앙대(50), 한국외대(50), 한양대(100)	동아대(80), 영남대(70), 원광대(60)

(※입학정원: 명)

교원

- 전임교원 수 20인 이상, 교원 1인당 학생 수 평균 6.3명
- 실무경력교원(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실무경력 5년 이상) 20% 확보

교육 시설

- 단독 건물, 강의실(대형 강의실 1개 이상 포함),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정보통신시설, 교원연구실, 세미나실, 연구소, 휴식공간 등 구축
- 학생 1인당 실 면적 12㎡ 이상 확보
- 열람실 보유 : 학생정원의 70%를 한 번에 수용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1인 1석 제공, 사물함 배치)
- 법학전문도서관의 소장도서 8만권 이상 확보

전용 기숙사 시설

- 전체 학생 중 54.8% 기숙사 시설 사용(현재 학교별로 최고 19.4% ~ 최대 166% 확보)

학생 지원

- 전체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 35% 이하로 유지
-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율 300% 이상
-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30% 이상
- 리걸클리닉(학생들이 실제사건 법률 상담 진행) 및 연구소 운영 등

교육과정 소개

교육과정의 특징

이론과 실무의 융합

- 법률가로서의 자질이 되는 민사법, 형사법, 공법 등 기본과목과 기초법, 외국법, 비교법 등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선택과목을 통하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 배양.
- 배양된 법률지식과 소양이 현실적인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실무경력 교원을 통하여 다양하고 충실한 실무교육을 제공.

학제적 · 종합적 교육

- 문답이나 토론 등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업으로 기존의 강의 방식과 차별화.
- 교과과정 중 다수의 과목에 있어서 경제학, 정책학, 철학, 인류학, 여성학, 역사학 등 관련 과목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 의료 등 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추구함.

공익과 직업윤리 강조

- 법률전문지식 이외에도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률가로 교육함.
- 교과과정 중 법조윤리 및 공익인권 관련 과목들을 다수 편성함.

교육과정개요

이 론 교 육

- 기본법학 : 법률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능력을 기르는 과목

구 분	내 용
공법	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민사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항목

-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 : 인간, 역사, 사회와 연관된 법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과제에 대한 새로운 법 형성과 법 발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목

구 분	내 용
기초법학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비교법학 등
인접과목	법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영역(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

- 전문법학 : 전문적인 지식과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 기업법무, 국제적 법률관계 등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 중 기존 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실 무 교 육

- 필수실무(5개) : 실무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시키고 기본 법학과목에서 습득한 법원칙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

구 분	내 용
법조윤리	법률가의 역할과 윤리에 관해 역사적 · 비교적 관점도 동원하면서 현재의 법제와 실태를 검토 · 분석하고, 변호사법 · 변호사윤리 등의 규정에 관련된 사례도 분석하여 법률가로서의 책임감과 윤리를 기르는 과목
법률정보의 조사	법령, 판례, 학설 등 법률가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목
법문서의 작성	계약서, 유언서, 의견서, 조사보고서 등의 법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을 첨삭지도 등을 통해 가르치는 과목
모의재판	헌법, 민사, 형사재판에 관한 모의적인 상황 속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재판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과목
실습과정	의뢰자를 면접, 상담, 설득하는 방법이나 교섭, 조정, 중재 등 분쟁해결방법론(ADR)의 이론과 실무를 역할학습을 통해 가르치는 로여링(Lawyering) 변호사 교원의 감독, 지도 아래 구체적 사건을 접하게 하여 법률상담, 사건 내용의 예비적 청취, 관계법령의 조사, 문제해결안의 검토 방법을 가르치는 클리닉(Clinic) 변호사 사무실, 기업의 법 관련 부서, 관공서의 법 관련 부서에서 연수를 하게 하는 인턴십(Internship)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에 규정됨.

특성화 프로그램

- 인적 · 물적 여건 및 지역 내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별 다양한 특성화 분야가 교육과정에 포함됨.

학교명	분야	학교명	분야	학교명	분야
강원대	환경법	**서울시립대**	조세법	**전북대**	동북아법
건국대	부동산 관련 법	**성균관대**	기업법무	**제주대**	국제법무
경북대	IT법	**아주대**	중소기업법무	**중앙대**	문화법
경희대	글로벌기업법무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비지니스와 법, 의료 · 과학기술과 법	**충남대**	지적재산권
고려대	GLP(국제법무)	**영남대**	공익 · 인권법	**충북대**	과학기술법
동아대	국제상거래법	**원광대**	의생명과학법	**한국외대**	국제지역법조인양성
부산대	금융 · 해운통상법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젠더법	**한양대**	국제소송법무, 지식 · 문화산업법무, 공익 · 소수자인권법무
서강대	기업법(금융법)	**인하대**	물류법, 지적재산권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 · 인권법, 기업 · 금융법	**전남대**	공익 · 인권법		

세계화 시대의 교육과정

- 국제화 소양 함양을 위한 노력
  3년의 교육과정 중 20개 과목 이상의 외국어 강의 개설 / 풍부한 국제적 강의경력과 실무경력을 갖춘 교원 확보 / 해외 교육기관과 MOU 체결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공동학위, 학술대회 및 연구 등)

장학금 제도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현황

구 분	재학생 수 (명)	총 등록금 (백만원)	장학금 수혜 현황		장학금 지원 현황	
			수혜 인원(명)	비율(%)	금액(백만원)	지급 비율(%)
1학기	6,174	48,179	3,716	60.2%	17,658	36.7%
2학기	6,080	43,445	3,432	56.4%	16,427	37.8%
계	12,254	91,624	7,148	58.3%	34,085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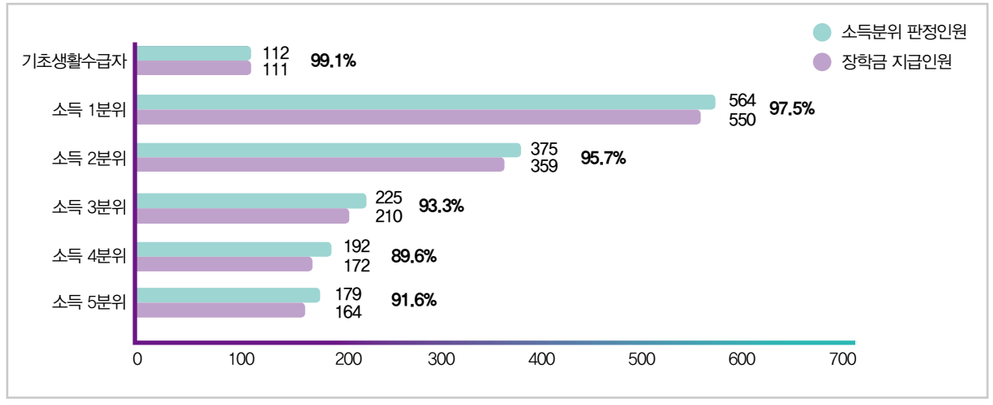
'16학년도 재학생 12,254명(1학기 6,174명, 2학기 6,080명) 가운데 7,148명(1학기 3,716명, 2학기 3,432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아 재학생 대비 등록금 수혜율은 58.3%로 나타났다.

- 총 등록금액 916억원 중 장학금 지급액은 340억원으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37.2%이다.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세부 현황

구 분	수혜 인원 (명)*	총 지원액 (백만원)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기타 자율 장학금		
			인원 (명)	금액 (백만원)	비율** (%)	인원 (명)	금액 (백만원)	비율 (%)
1학기	3,716	17,658	3,025	14,579	82.6%	963	3,079	17.4%
2학기	3,432	16,427	2,498	12,961	78.9%	1,179	3,466	21.1%
계	7,148	34,085	5,523	27,540	80.8%	2,142	6,545	19.2%

'16년 2학기부터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분위를 판정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총액(340억원) 중 80.8%인 275억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 월 소득인정액이 619만원인 소득 5분위까지는 사실상 대부분이(95.1%, 1,647명 중 1,566명 지원) 장학금 수혜.

"돈 한푼 내지 않고 로스쿨 다닌 학생, 작년에만 95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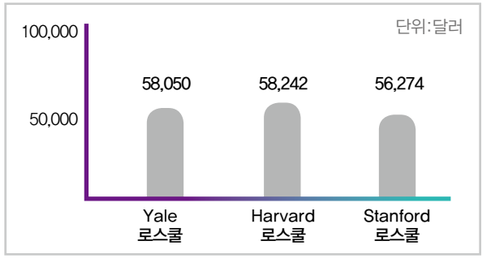
"돈 없는 사람은 로스쿨을 못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년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000명 중 953명이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다녔어요. 전체의 16%나 됩니다. 장학금을 한 푼도 안 받은 학생은 전체의 5~10%밖에 안 돼요. 90% 이상 학생이 적게는 20%에서 100%까지 학비를 면제받습니다. 학교별로 등록금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등록금 자체가 전보다 15% 내리기도 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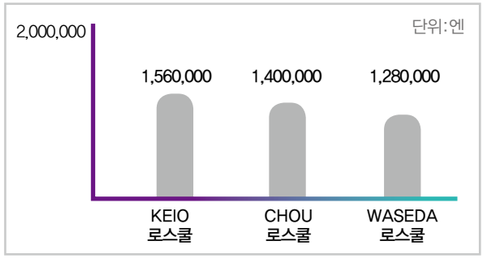
헤럴드경제, 2017-01-0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인터뷰 中

참고① 전문대학원별 연간 1인당 등록금 및 장학금 비교(2015년) 단위:천원 / %

구분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법학전문대학원	최고	21,892	10,146	56.1	14,398
	평균	15,694	6,242	39.0	9,452
	최저	9,648	2,472	23.8	5,155
의학전문대학원	최고	23,672	8,004	39.3	18,884
	평균	15,869	3,227	19.7	12,642
	최저	9,830	1,117	9.4	8,253
경영전문대학원	최고	40,000	18,196	92.1	39,402
	평균	24,445	5,896	27.7	18,594
	최저	16,140	598	1.5	1,554

참고② 해외로스쿨 등록금 비교(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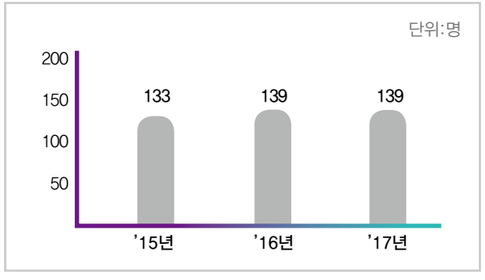




특별전형 / 지역균형인재

특별전형 제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사회적 · 신체적 ·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위해 '특별전형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출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인원 : 1,170명(2009년~2017년)
- 연평균 입학 인원 : 130명(6.27%)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매년 약 130명(6.27%)의 학생을 특별전형 제도로 선발해, 이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지방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 강원, 제주(2개교) : 입학정원의 10% 이상 선발
- 경북, 동아, 부산, 영남, 원광, 전남, 전북, 충남, 충북(9개교) : 입학정원의 20% 이상 선발

※ 2017학년도에는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총 174명의 학생이 입학

실무교육

기관별 실무수습 기회 제공

법학전문대학원은 판사, 검사 등 현직법조인을 교원으로 활용하는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학생에게 다양한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무수습은 로펌, 법률사무소, 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도 실시되는데 일부 학생은 실무실습을 통해 연수기관에서 채용이 확정되기도 한다.

구 분	내 용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1,2,3학년생
실습기관	•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체결 기관(법원, 국회, 국세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방부 등) • 로펌(김앤장, 세종, 광장 등), 법률사무소 • 기업(삼성, LG, KT 등) • 금융기관 등
실습기간	동계/하계 방학 중 1주~4주
학점인정	학교별 1학점~2학점 인정

리걸클리닉을 통한 실무 능력 향상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실습식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이 실무교수의 지도하에 지역 주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지원과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실무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제도다. 의대생이 직접 환자를 치료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리걸클리닉 소송은 로스쿨 학생들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실제 법률상담과 소송을 수행. 소장, 준비서면 작성 등을 통해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법률상담(건)	1,284	2,147	2,204	2,080
소송참여(건)	235	240	424	334

변호사 시험

시험 목적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검정

응시 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단, 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

시험 시기

매년 1월, 휴식일(1일) 포함하여 5일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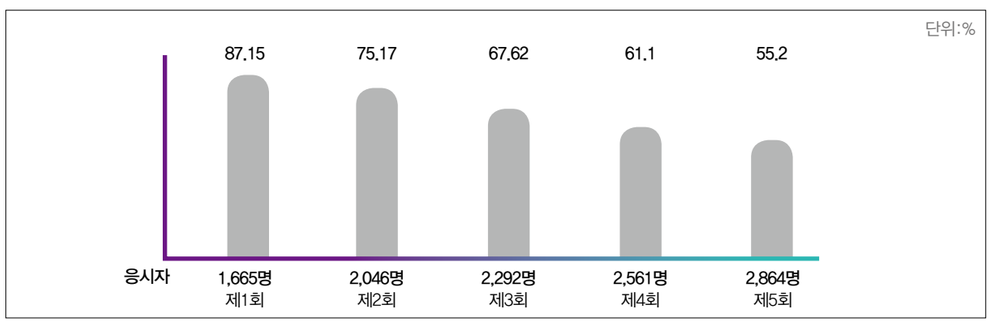
시험 과목

필수과목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 공법(헌법, 행정법) –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사례형(택1)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법조윤리	선택형 – 8월 중 별도 시행

합격 결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합격률(응시자 대비)



로스쿨 졸업생의 사회 진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43기 사법연수생의 분야별 취업률 (2014.12월 기준)

구분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취업인원	비율(%)	취업인원	비율(%)
법원	46명	6.1	58명	4.2
검찰	40명	5.3	35명	2.5
변호사	377명	49.9	781명	56.6
법무관	179명	23.7	141명	10.2
공공기관	39명	5.2	141명	10.2
기업 등	74명	9.8	225명	16.3
총계	**755명**	**100.0**	**1,381명**	**100.0**

피키캐스트 김유나 변호사(이화여대 로스쿨)

"전통적인 기업법무에 해당하는 업무들과, 저작권 관리, 서비스 기획 자문과 같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모바일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편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상되는 리스크를 진단하면서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즐거워요!"

법무법인 광장 박수연 변호사(경희대 로스쿨)

"저는 현재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을 포괄하는 의료영역을 다루는 헬스케어팀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 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민 ·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규제 이슈와 관련한 법적 자문을 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서청운 판사(전남대 로스쿨)

"판사는 다수결에 의한 권력이나 수시로 변화하는 여론에 좌우됨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소수의 편에 서지 않더라도 다수결로 대변되지 않는 소수자들이나 정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이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합니다."

로스쿨 합격 노하우 ①

하연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리트,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정답률을 높여야

언어이해는 혼자서 공부해도, 문제 유형에만 익숙해지면 능숙하게 풀 수 있는 스킬이 생긴다. 시간을 정해놓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리트는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풀되 정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첨삭에 첨삭을 거듭해야 하는 자기소개서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첨삭을 부탁해보자. 타인의 시선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할지 감이 잡힐 것이다.

문건협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보고 또 보고

자기소개서는 제출 마감일까지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작성해서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여러 명에게 첨삭을 받는다는 금상첨화. 여러 번 읽고 또 읽어볼수록 자신을 잘 표현하는 문장을 찾아, 압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LEET 시험 당일, 과한 긴장은 오히려 독

리트는 단순히 외운 것을 쏟아내는 시험이 아니라, 머리를 굴려서 보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일 긴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약간의 긴장은 시험에 도움이 되지만, 과한 긴장은 오히려 머릿속을 꼬이게 할 수 있다. 실력 발휘를 위해서는 긴장하지 않는 연습도 필요하다.

면접을 위한 면접

면접을 볼 때 두 가지만 기억할 것! '자신감과 겸손함의 조화' 그리고 '솔직함과 자기PR의 조화'이다. 진실함을 갖고 면접에 임하되, 자신감과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김팽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본인에게 맞는 패턴을 찾아야

리트의 경우 공부를 한다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다만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생긴다. 추리를 예로 들면 여러 가지 유형과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패턴이 있을 것이다. 또 본인이 평소 약하다고 생각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잘 풀리지 않으면 과감하게 넘어가야 한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흐를 뿐이다.

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

장기적으로 학창 시절부터 입시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는 미리 법학공부를 선행하기를 권한다. 법전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다. 관련 서적을 읽어보거나 법률사무소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사회에 진출에 있다가 로스쿨에 입학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로스쿨 입시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책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미 늦었다.(웃음) 스펙을 쌓기에는 늦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것이다. 모의고사를 본 후 이 실력이면 어느 학교를 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

조감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강점에 집중하라

법전원 입시에서는 학점(GPA),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성적(TOEIC 등)이 세 가지 요소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합격자들의 대부분이 무엇 하나 빠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점수를 잃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다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준비도 있을 수 없으므로 부족한 점보다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입학의 기회는 1년에 단 두 장의 카드뿐!

입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지원 가능한 학교가 '단 두 곳'뿐이라는 점이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기회인만큼, '안정지원'을 고려해볼 것을 추천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는 오래 준비한다고 자신의 스펙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로스쿨 합격 노하우 ②

김선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합격자 김선규입니다. 저의 합격수기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Ⅰ. 들어가며

135점을 받아 모 법전원에 7기로 입학하신 선배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TOEIC 점수를 만들기 위해 LEET준비와 TOEIC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따로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모르는 문제는 영문과에 재학 중인 친구에게 질문하였고, LC준비를 위해 리스닝 파일을 길 걷는 시간 등 남는 시간에 틈틈이 들었습니다. LEET 시험이 끝난 뒤에는 3월에 구성된 스터디 구성원들 그대로 면접을 대비하는 스터디를 구성하여 면접 대비를 하며 동시에 자기소개서를 서로 읽고 첨삭해주며 로스쿨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Ⅱ. 수험생활

(1) 전반적 수험생활

3.6/4.3이라는 저의 학점은 서강대학교 내에서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위 '괜찮은' 학점에 속했지만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는 학점이었습니다. 하지만 4학년이 학점을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했기에 저는 LEET에서 고득점을 하여 저만의 강점을 살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3월부터 신촌에서 스터디를 구성하여 LEET 시험 대비를 하였고 남는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LEET 추리논증 문제를 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답노트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는 실제 LEET 시험에서

(2)LEET

1)언어이해

언어이해 영역은 어차피 지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기 보다는 독해 속도와 지문 친화력을 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전감각을 기르기 위해 시간을 재 1주일에 한 번 실전처럼 문제를 풀었고 그 외에는 배경지식이 부족해 읽는데 오래 걸렸던 지문들의 독해 속도를 향상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과학에 흥미가 많았고, 경제학과 역사학을 전공하였던 저는 과학, 경제학 등의 지문을 빠르게 이해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흥미가 없던 철학과 예술 분야에 대한 지문은 빠르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위해 예술과 철학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책을 찾는 것도 어려웠을 뿐더러 제게 필요한 것은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닌 지문 친화력을 기를 정도의 넓고 얕은 지식이었기 때문에 곧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대신 저는 네이버캐스트의 철학의 숲 등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었습니다. 이후 익숙한 용어들이 등장하는 철학과 예술 지문을 읽는 속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추리논증

언어이해와는 달리 추리논증은 다양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PSAT for LEET 라는 문제집을 주로 보았고, 학원 강사들이 제작한 하프 모의고사 문제들도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부족했기에 앞부분의 언어추론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고 남는 시간을 논리게임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도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3)논술

솔직히 LEET 논술은 크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문제만 인쇄하여 풀어보며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분량을 맞추기 어렵지는 않은지 정도만 체크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아 변별력이 높지 않고,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논술의 비중이 극히 낮아 논술을 준비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 자기소개서

대외활동 경험도 전무하고, 봉사활동 시간도 전혀 없었던 저는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할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은 현 상황에서 그런 것들 보다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7기 선배님의 조언에 따라, LEET 점수와 수강했던 법학 과목들의 성적을 강조하며 저의 법학적성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초고를 완성하고는 서강대학교 글쓰기센터 선생님, 논술 과외를 하는 친구, 로스쿨에 다니는 선배님들, 스터디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부탁드렸습니다. 글쓰기센터 선생님과 논술 과외를 하는 친구는 주로 문법적인 부분이나 적절한 어휘 등 형식적인 부분을 바로잡아 주었고, 스터디 구성원들과 로스쿨에 다니는 선배님들은 좀 더 보완해야할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대외활동, 봉사활동 경험이 없다고 너무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4) 면접

면접 준비 교재로는 김종수 저 '로스쿨 면접 250제' 라는 책을 사용했습니다. 스터디는 각 사람이 해당 쟁점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정하고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 때가 많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터디가 끝난 후에는 집에 돌아와 토론 내용을 복기하며 당시에 하지 못한 반론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중순부터는 실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최초 발언 시 최소 세 가지 이상의 논거를 제시하여 면접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마다 면접 시 메모지를 참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르지만 제가 준비한 학교는 모두 메모지를 참고할 수 있어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좀 더 용이했습니다.

Ⅲ. 마치며

로스쿨 입시에서는 단순한 정량 점수 보다 대학 4년간의 삶이 어땠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정량점수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자기소개서에 자신만의 강점을 진솔하게 담아내며 면접 대비를 충실히 하신다면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1. 시험의 성격 및 목적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시험 성적의 활용 및 응시 자격

-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됨.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학생선발)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와 '2018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임.
-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음.

3. 시험 일시 및 장소

-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7. 8. 27.(일)에 실시함.

※ 2019학년도 시험부터는 수험생 진학준비 등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7월에 실시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 2018년 2월 공지)

-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서울'의 경우,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지망과 2지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별 수용인원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험표 출력 시(8.8.~27.) 배정된 학교 확인

4.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

-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됨.
-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기간	문항형태
1교시	언어이해	35	09:00 ~ 10:20 (80 분)	5지선다형
2교시	추리논증	35	11:00 ~ 12:50 (110분)	5지선다형
점심시간			12:50 ~ 13:50	
3교시	논 술	2	14:00 ~ 16:00 (120분)	서답형
계	3개 영역	72문항	310분	

–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에게는 홀수형, 짝수인 수험생에게는 짝수형 문제지가 배부됨. 논술 영역의 문제지는 단일유형임.

※ [참고] 개선계획에 따른 2019학년도 시험의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기간	문항형태
1	언어이해	30	09:00 ~ 10:10 (70 분)	5문항 · 10분 감소
2	추리논증	40	10:45 ~ 12:50 (125분)	5문항 · 15분 증가
3	논 술	2	14:00 ~ 15:50 (110분)	10분 감소
계	3개 영역	72문항	305분	5 분 감소

– 시험 개선계획 발표 : '16. 12. 01.(목)

5. 출제 기본방향

가. 공통 사항

-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나. 언어이해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함.

다. 추리논증 영역

-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함.

라. 논술 영역

-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 · 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함.
-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함으로써 법학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강조되는 방식의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함.

6. 원서접수 및 응시수수료

가.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은 7월 4일 09시부터 7월 13일 18시까지이며,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홈페이지 주소 : http://www.leet.or.kr]
  – 기간 내에는 24시간 내내 접수 가능, 기간 종료 후 접수 불가

나. 응시수수료

-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만 8천 원임.(전년대비 약 8.15%, 22,000원 인하)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
- 신청방법

  1)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원서접수

  2) 상기 고시에 따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등기우편으로 제출

  –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2017. 7. 17(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면제대상 여부를 심의하며, 방문제출은 불가

  – 주소 :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면제 담당자(02-888-2034)

- 증빙서류 : 고시 재검토기한('17. 5. 10.) 도래에 따라 추후 확정 공지

※ [참고] 전년도 제출서류

– 공통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수험번호 기재, 서명 또는 날인 必) 1부

㈏ 응시수수료 면제 입증서류 1부 〈㈀~㈉ 중 택 1〉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확인서

㈃ 장애수당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응시수수료 반환

-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반환함.(「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접수기간 내 취소신청 :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접수마감일 7월 13일까지 : 100% (248,000원)

2) 접수기간 이후 취소신청

1차 –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간 (7월 14일~20일) : 60% (148,800원)

2차 – 1차 기간 다음날부터 14일간 (7월 21일~8월 3일) : 50% (124,000원)

3차 – 2차 기간 다음날부터 시험 4일 전까지 (8월 4일~23일) : 40% (99,200원)

시험 3일 전부터 (8월 24일~) : 0% (반환불가)

7. 문제 및 정답공개, 성적발표

-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문제와 정답을 탑재하되 최종 확정된 정답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후 공개함.
- 시험 성적은 9월 19일(화)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수험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하고 성적표를 출력할 수 있음.

–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 성적으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함.

–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 및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음.

– 논술 영역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성적을 활용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채점함.

8.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준함.)

- 대상 : 원서접수자 중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원서접수 시 신체적 장애여부를 묻는 란에 체크하고,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 서류 접수 후 수험생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적절한 편의지원 제공

9.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경미한 부정행위 : 당해 시험 무효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경미한 부정행위

- 중대한 부정행위 :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중대한 부정행위

- 심각한 부정행위 : 민 · 형사상 조치 및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 · 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

  –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어학 성적표, 학부성적표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심각한 부정행위

- 개인의 의료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지참하여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검사한 후 승인한 경우에만 휴대가 가능함.

10.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 당일 08:30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함.

- 매 교시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 수험생은 시험 중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미디어플레이어 등 각종 정보 · 통신 기기(저장장치 포함)를 소지할 수 없음.

  –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사용 가능하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전자시계(스톱워치, 수험용 시계 포함)의 사용을 금합니다.
  – 귀마개는 소음 차단을 위해서 귀에 넣어 사용하는 소형 스펀지 귀마개만 감독관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렌즈가 무(無)색이 아닌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할 수 없으며, 안경에 별도의 장비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 감독관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시선을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모자, 천 등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중에는 물을 비롯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으며 스테이플, 자, 칼 등 문제풀이와 관계없는 도구의 사용은 감독관의 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험생은 문제지 및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필히 준수하고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임.
- 답안지에 정해진 표기, 답안 이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해서는 안 됨.
- OMR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해야 함.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OMR답안지에 연필 등 다른 필기구로 가표기 할 경우, 판독 시 이중표기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책임임.
- OMR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금지)만을 이용해야 하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임.

  – 수험생이 희망하는 경우 답안지 교체 가능
- 답을 2개 이상 표기하는 경우와 불완전하게 표기하여 오류로 판독되는 경우 해당 문항은 '0점' 처리함.
- 논술답안지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거나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해야 함.

  – 논술답안지에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 사용금지
- 수험생은 수험표와 함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11. 기타사항

- 시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참조하기 바람.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 현황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지원자 / 응시자

언어이해	전체지원자 **8,711** 명(100%)	응시자 **8,105** 명
추리논증	전체지원자 **8,711** 명(100%)	응시자 **8,094** 명

성별 응시자

남성 **4,828** 명(59.6%)

여성 **3,277** 명(40.4%)

계열별 응시자

법학 2,676명 (33%)

상경 1,478명 (18.2%)

사회 1,312명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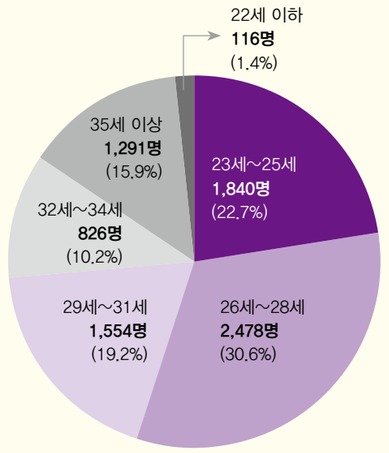
인문 1,221명 (15.1%)

공학 527명 (6.5%)

기타 891명 (11%)

※ 기타: 농학, 사범, 신학, 약학, 예체능, 의학, 자연 등

연령별 응시자



총 응시자 (언어영역 기준)
8,105 명(100%)

법학적성시험 영역별 점수분포

※ 언어이해 영역의 표준점수 급간별 빈도, 비율 및 누적 비율

〈2016학년도〉

표준점수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70.0 이상 ~ 75.0 미만	37	0.5	0.5
65.0 이상 ~ 70.0 미만	453	6.0	6.5
60.0 이상 ~ 65.0 미만	658	8.7	15.1
55.0 이상 ~ 60.0 미만	1,521	20.1	35.2
50.0 이상 ~ 55.0 미만	1,160	15.3	50.5
45.0 이상 ~ 50.0 미만	1,634	21.6	72.1
40.0 이상 ~ 45.0 미만	780	10.3	82.4
35.0 이상 ~ 40.0 미만	750	9.9	92.3
30.0 이상 ~ 35.0 미만	373	4.9	97.2
25.0 이상 ~ 30.0 미만	106	1.4	98.6
20.0 이상 ~ 25.0 미만	78	1.0	99.6
15.0 이상 ~ 20.0 미만	19	0.3	99.9
10.0 이상 ~ 15.0 미만	8	0.1	100.0
5.0 이상 ~ 10.0 미만	0	0.0	100.0
0.0 이상 ~ 5.0 미만	2	0.0	100.0
계	7,579	100.0	

〈2017학년도〉

표준점수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70.0 이상 ~ 75.0 미만	78	1.0	1.0
65.0 이상 ~ 70.0 미만	428	5.3	6.2
60.0 이상 ~ 65.0 미만	671	8.3	14.5
55.0 이상 ~ 60.0 미만	1,468	18.1	32.6
50.0 이상 ~ 55.0 미만	1,722	21.2	53.9
45.0 이상 ~ 50.0 미만	1,125	13.9	67.8
40.0 이상 ~ 45.0 미만	1,285	15.9	83.6
35.0 이상 ~ 40.0 미만	758	9.4	93.0
30.0 이상 ~ 35.0 미만	279	3.4	96.4
25.0 이상 ~ 30.0 미만	220	2.7	99.1
20.0 이상 ~ 25.0 미만	60	0.7	99.9
15.0 이상 ~ 20.0 미만	9	0.1	100.0
10.0 이상 ~ 15.0 미만	1	0.0	100.0
5.0 이상 ~ 10.0 미만	1	0.0	100.0
계	8,105	100.0	

※ 추리논증 영역의 표준점수 급간별 빈도, 비율 및 누적 비율

〈2016학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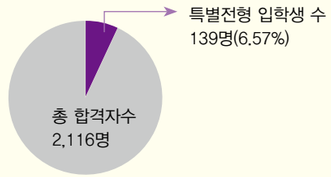
표준점수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80.0 이상 ~ 85.0 미만	1	0.0	0.0
75.0 이상 ~ 80.0 미만	16	0.2	0.2
70.0 이상 ~ 75.0 미만	72	1.0	1.2
65.0 이상 ~ 70.0 미만	489	6.5	7.6
60.0 이상 ~ 65.0 미만	705	9.3	16.9
55.0 이상 ~ 60.0 미만	1,080	14.3	31.2
50.0 이상 ~ 55.0 미만	1,271	16.8	48.0
45.0 이상 ~ 50.0 미만	1,782	23.5	71.5
40.0 이상 ~ 45.0 미만	900	11.9	83.4
35.0 이상 ~ 40.0 미만	643	8.5	91.9
30.0 이상 ~ 35.0 미만	441	5.8	97.7
25.0 이상 ~ 30.0 미만	117	1.5	99.2
20.0 이상 ~ 25.0 미만	46	0.6	99.8
15.0 이상 ~ 20.0 미만	7	0.1	99.9
10.0 이상 ~ 15.0 미만	3	0.0	100.0
5.0 이상 ~ 10.0 미만	2	0.0	100.0
계	7,575	100.0	

〈2017학년도〉

표준점수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75.0 이상 ~ 80.0 미만	5	0.1	0.1
70.0 이상 ~ 75.0 미만	100	1.2	1.3
65.0 이상 ~ 70.0 미만	284	3.5	4.8
60.0 이상 ~ 65.0 미만	937	11.6	16.4
55.0 이상 ~ 60.0 미만	1,626	20.1	36.5
50.0 이상 ~ 55.0 미만	1,157	14.3	50.8
45.0 이상 ~ 50.0 미만	1,725	21.3	72.1
40.0 이상 ~ 45.0 미만	831	10.3	82.3
35.0 이상 ~ 40.0 미만	818	10.1	92.5
30.0 이상 ~ 35.0 미만	392	4.8	97.3
25.0 이상 ~ 30.0 미만	128	1.6	98.9
20.0 이상 ~ 25.0 미만	83	1.0	99.9
15.0 이상 ~ 20.0 미만	7	0.1	100.0
10.0 이상 ~ 15.0 미만	1	0.0	100.0
계	8,094	100.0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

총 합격자수 & 특별전형 입학생 수



성별

남성 1,170명(55.29%), 여성 946명(4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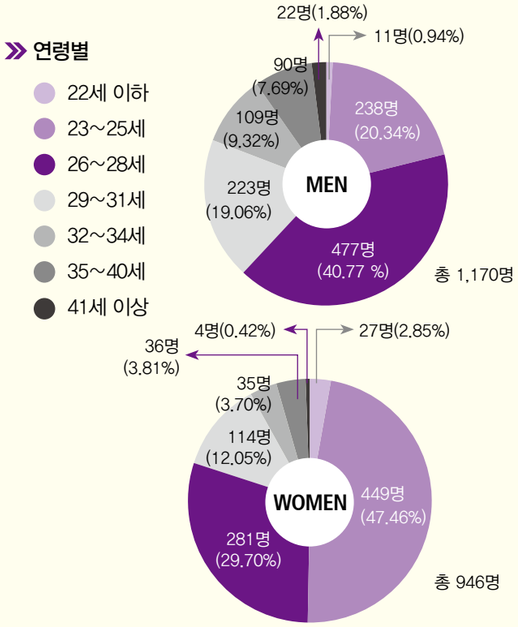
자교출신 VS. 타교출신

자교출신 497명(23.49%), 타교출신 1,619명(76.51%)

법학사 VS. 비법학사

법학사 594명(28.07%), 비법학사 1,522명(71.93%)

연령별



출신계열별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 계			비율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법학계열	344	215	559	24	11	35	368	226	594	28.07
상경계열	261	176	437	28	9	37	289	185	474	22.40
사회계열	208	188	396	15	13	28	223	201	424	20.04
인문계열	127	198	325	8	11	19	135	209	344	16.26
공학계열	65	20	85	6	1	7	71	21	92	4.35
사범계열	26	32	58	1	3	4	27	35	62	2.93
자연계열	19	20	39	2	1	3	21	21	42	1.98
예체능계열	4	7	11	1	0	1	5	7	12	0.57
약학계열	4	7	11	0	0	0	4	7	11	0.52
의학계열	3	8	11	0	0	0	3	8	11	0.52
신학계열	2	2	4	0	1	1	2	3	5	0.24
농학계열	0	1	1	0	0	0	0	1	1	0.05
기 타	20	20	40	2	2	4	22	22	44	2.08
계	**1,083**	**894**	**1,977**	**87**	**52**	**139**	**1,170**	**946**	**2,116**	**100**

2017학년도 법전원별 1단계 전형요소 실질반영률

구분	1단계 전형					
	정량평가					정성평가
	LEET (언어/추리)	학부 성적	어학 성적	LEET (논술)	소계	서류 심사
강원대	50.00%	25.00%	P/F		75%	25.00%
건국대	55.15%	27.57%	17.28%		100%	
경북대	36.67%	23.33%	20.00%		80%	20.00%
경희대	42.86%	28.57%	P/F		71.43%	28.57%
고려대	54.44%	22.22%	3.89%	P/F	80.55%	19.44%
동아대	50.00%	16.67%	33.33%		100%	
부산대	53.19%	42.55%	4.26%		100%	
서강대	33.33%	33.33%	8.33%		74.99%	25.0%
서울대	50.00%	50.00%	P/F		100%	
서울시립대	33.90%	25.42%	23.73%		83.05%	16.95%
성균관대	40.85%	16.34%	16.34%	1.96%	75.49%	24.51%
아주대	55.56%	22.22%	22.22%		100%	
연세대	27.78%	27.78%	16.67%	서류평가 시 고려	72.23%	27.78%
영남대	58.82%	3.92%	1.96%		64.7%	35.29%
원광대	58.82%	17.65%	23.53%		100%	
이화여대	33.33%	22.22%	16.67%		72.22%	27.78%
인하대	62.50%	25.00%	12.50%		100%	
전남대	40.90%	16.83%	8.48%		66.21%	33.79%
전북대	47.00%	23.00%	15.00%		85%	15.00%
제주대	41.67%	33.33%	25.00%		100%	
중앙대	26.67%	26.67%	20.00%		73.34%	26.67%
충남대	34.28%	28.57%	28.57%		91.42%	8.57%
충북대	27.78%	27.78%	27.78%		83.34%	16.67%
한국외대	50.00%	16.67%	16.67%	P/F	83.34%	16.67%
한양대	42.00%	24.00%	10.00%		76%	24.00%

2017학년도 법전원별 자기소개서의 기재금지내용 및 위반 시 조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고

대학명	기재금지문구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
강원대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실명 등 특정가능한 정보와 직장(직위, 직업)명을 기재할 경우 실격조치 광의적 직종명 기재의 경우도 실격조치. 단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설명을 위해 광의적 직종명을 기재할 경우 감점 조치
건국대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실명 등 특정가능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직장(직위, 직업)명을 기재 한 경우 실격조치,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평가에 미반영되고, 이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직업을 암시하는 경우 감점조치
경북대	부모 또는 친인척의 신상에 관한 내용(성명, 직업, 직장명 등)을 기재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하여 기재한 경우 실격 처리함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한 광의적 직종명 기재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평가에 미반영.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 친인척이 법조, 기타 유력 직업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유력인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실격 처리함
경희대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을 일체 기재해서는 안 되며, 기재 시 실격 조치 광의적 직종명 포함 부모·친인척의 실명,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를 전면 금지함
고려대	지원자 성명,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 관련 정보 기재 금지, 이를 위반하여 특정이 가능한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및 직장명을 기재한 경우 실격, 합격취소, 입학(허가) 취소 또한 사업, 법조인,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 기재도 금지
동아대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실명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직장(직위, 직업)명을 기재한 경우 실격처리되며, 역경 극복 등 사회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광의적 직종명을 기재한 경우 평가에 미반영함. 단 이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유력인의 성명, 직업, 직장 등이 기재해서는 안 됨
부산대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실명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직장(직위, 직업)명을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하게 광의적 직종명을 기재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친인척이 법조, 기타 유력 직업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유력인의 성명을 기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자기소개서 전형에서 4점을 감점함

대학명	기재금지문구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
서강대	부모·배우자 및 친인척의 성명, 직업, 직책, 직위 또는 이를 확인·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 처리함 광의적 직종명을 기재한 경우에도 부모·배우자 및 친인척이 법조, 기타 유력 직업임을 암시하거나 유력인의 성명을 기재해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실격처리 다만, 특별전형의 경우 본인의 역경 극복 등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광의적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
서울대	본인 성명을 비롯하여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특히 부모·친인척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일체 기재를 금지함.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직업도 기재가 금지되며, 추상적으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사업, 법조인, 공무원, 회사원 등) 역시 허용되지 아니함. 기재 금지된 사항을 기재한 경우 평가과정에서의 실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서울시립대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 또는 이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해서는 안 되며, 기재 시 실격처리
성균관대	본인 성명을 비롯하여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직장/직위 등 기재 금지(사업, 법조인,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 기재도 금지)되며, 이를 기재 시 실격, 합격취소, 입학(허가)취소
아주대	본인에 관한 사항만 작성해야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및 친인척의 신상(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경우 실격조치
연세대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실명 등 특정가능한 정보와 직장(직위, 직업)명을 기재한 경우 실격조치되며, 광의적 직종명 기재는 감점조치.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 감점조치하며, 특별전형의 경우에만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제한적으로 광의적 직종명 기재를 허용함
영남대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한 경우 실명 등 특정가능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직장(직위, 직업)명을 기재한 경우 실격조치 광의적 직종명 기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법조, 기타 유력직업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유력인의 성명을 기재해서는 안 됨
원광대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관련 정보 기재하거나 암시할 경우 실격 처리
이화여대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실격조치 역경극복 등 경험설명을 위해 부득이 단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나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직업을 암시하는 경우 감점조치
인하대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기재 금지. 실명, 직장명 등 특정 가능 정보 기재 시 실격조치, 직장(직업, 직위)명 기재 시 실격조치, 역경 극복 등 경험설명을 위한 과정에서 사용된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유력인의 성명이나 법조 등 유력직업 등은 기재해서는 안 됨

대학명	기재금지문구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
전남대	부모·친인척의 성명이나 직업, 직장 또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기재금지사항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실격 처리됨 실명 등 기재하거나 직장(직위, 직업)명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 처리되며, 광의적 직종명 기재는 역경 극복 등 경험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함. 단 이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 감점 조치함
전북대	본인 이외의 부모 또는 친인척의 신상에 관한 내용(성명, 직장명 등)은 기재 금지되며, 기재 시 실격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 취소 가능 실명 등 특정가능한 정보나 직장(직위, 직업)명을 기재한 경우 실격처리 광의적 직종명 기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나 평가에 미반영
제주대	부모·친인척의 실명을 기재, 부모·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직위 또는 관계를 기재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함. 법조인·정치인·공직자 등 유력 직업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경우 감점(서류평가 점수 40점의 20%(8점)) 처리 역경 극복 등 경험설명을 위한 과정에서 사용된 성명이나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함. 단 이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유력인의 성명이나 법조 등 유력직업 등은 기재해서는 안 됨
중앙대	실명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 시 실격 조치, 간접적으로 법조 등 기타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사항도 기재해서는 안되며, 특별전형의 경우에만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제한적으로 광의적 직종명 기재를 허용함
충남대	실명 등 특정가능정보 기재 시 불합격처리,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 시 불합격 처리, 그 외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신상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내용도 금지되며, 광의적 직종명 기재 금지, 단 특별전형의 경우에만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제한적으로 광의적 직종명 기재 허용
충북대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부모 및 친인척의 이름, 직장명 등 특정가능정보와 부모 및 친인척의 직업, 광의적 직종명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조치
한국외대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 관련 정보를 일체 기재해서는 안 되며, 기재 시 실격조치 광의적 직종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부모·친인척이 법조, 기타 유력 직업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유력인의 성명을 기재해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한 경우 서류평가위원회에서 실격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함
한양대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실격 조치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경쟁률

※ 원서접수기간 : 2015. 10. 5.(월) 09:00 ~ 8.(목) 18:00까지

대학명	모집정원							지원현황							경쟁률(%)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18	1	19	19	1	20	39	109	4	113	144	6	150	263	6.06	4.00	5.95	7.58	6.00	7.50	6.74
건국대	38	2	40				40	124	7	131				131	3.26	3.50	3.28				3.28
경북대	57	3	60	56	4	60	120	196	8	204	220	11	231	435	3.44	2.67	3.40	3.93	2.75	3.85	3.63
경희대	56	4	60				60	197	12	209				209	3.52	3.00	3.48				3.48
고려대				114	6	120	120				406	25	431	431				3.56	4.17	3.59	3.59
동아대	38	2	40	38	2	40	80	307	9	316	319	8	327	643	8.08	4.50	7.90	8.39	4.00	8.18	8.04
부산대	66	4	70	46	4	50	120	236	16	252	174	13	187	439	3.58	4.00	3.60	3.78	3.25	3.74	3.66
서강대	19	3	22	18		18	40	162	6	168	151		151	319	8.53	2.00	7.64	8.39		8.39	7.98
서울대	141	9	150				150	504	56	560				560	3.57	6.22	3.73				3.73
서울시립대	45	5	50				50	166	13	179				179	3.69	2.60	3.58				3.58
성균관대				114	6	120	120				501	25	526	526				4.39	4.17	4.38	4.38
아주대	24	2	26	23	1	24	50	158	5	163	186	6	192	355	6.58	2.50	6.27	8.09	6.00	8.00	7.10
연세대				114	6	120	120				365	33	398	398				3.20	5.50	3.32	3.32
영남대	33	2	35	33	2	35	70	207	10	217	239	9	248	465	6.27	5.00	6.20	7.24	4.50	7.09	6.64
원광대	30		30	25	5	30	60	297		297	269	15	284	581	9.90		9.90	10.76	3.00	9.47	9.68
이화여대				94	6	100	100				331	19	350	350				3.52	3.17	3.50	3.50
인하대	22	3	25	25		25	50	78	8	86	109		109	195	3.55		3.44	4.36		4.36	3.90
전남대	58	12	70	50		50	120	299	22	321	256		256	577	5.16	1.83	4.59	5.12		5.12	4.81
전북대	37		37	37	6	43	80	190		190	217	9	226	416	5.14		5.14	5.86	1.50	5.26	5.20
제주대	18	2	20	18	2	20	40	90	3	93	112	5	117	210	5.00	1.50	4.65	6.22	2.50	5.85	5.25
중앙대	46	4	50				50	176	16	192			–	192	3.83	4.00	3.84				3.84
충남대	50		50	45	5	50	100	127		127	138	14	152	279	2.54		2.54	3.07	2.80	3.04	2.79
충북대	40		40	26	4	30	70	277		277	204	11	215	492	6.93		6.93	7.85	2.75	7.17	7.03
한국외대	26	4	30	20		20	50	146	12	158	114		114	272	5.62		5.27	5.70		5.70	5.44
한양대	95	5	100				100	467	20	487			–	487	4.92	4.00	4.87				4.87
합 계	957	67	1,024	915	60	975	1,999	4,513	227	4,740	4,455	209	4,664	9,404	4.72	3.39	4.63	4.87	3.48	4.78	4.70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경쟁률

※ 원서접수기간 : 2016. 10. 4.(화) 09:00 ~ 7.(금) 18:00까지

대학명	모집정원							지원현황							경쟁률(%)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38	2	40	40			–	221	8	229	229				5.82	4.00	5.73	5.73
건국대	38	2	40			–	40	127	8	135			–	135	3.34	4.00	3.38				3.38
경북대	57	3	60	56	4	60	120	218	13	231	262	16	278	509	3.82	4.33	3.85	4.68	4.00	4.63	4.24
경희대	55	5	60			–	60	291	28	319			–	319	5.29	5.60	5.32				5.32
고려대				114	6	120	120				378	35	413	413				3.32	5.83	3.44	3.44
동아대	38	2	40	38	2	40	80	264	10	274	289	10	299	573	6.95	5.00	6.85	7.61	5.00	7.48	7.16
부산대	66	4	70	46	4	50	120	231	15	246	191	19	210	456	3.50	3.75	3.51	4.15	4.75	4.20	3.80
서강대	19	2	21	18	1	19	40	188	8	196	215	10	225	421	9.89	4.00	9.33	11.94	10.00	11.84	10.53
서울대	141	9	150			–	150	480	62	542			–	542	3.40	6.89	3.61				3.61
서울시립대	45	5	50			–	50	194	28	222			–	222	4.31	5.60	4.44				4.44
성균관대				114	6	120	120				398	29	427	427				3.49	4.83	3.56	3.56
아주대	24	2	26	23	1	24	50	129	9	138	154	6	160	298	5.38	4.50	5.31	6.70	6.00	6.67	5.96
연세대				114	6	120	120				481	30	511	511				4.22	5.00	4.26	4.26
영남대	33	2	35	33	2	35	70	227	10	237	254	10	264	501	6.88	5.00	6.77	7.70	5.00	7.54	7.16
원광대	30		30	25	5	30	60	297		297	248	17	265	562	9.90		9.90	9.92	3.40	8.83	9.37
이화여대				94	6	100	100				361	22	383	383				3.84	3.67	3.83	3.83
인하대	22	3	25	25		25	50	108	13	121	146		146	267	4.91	4.33	4.84	5.84		5.84	5.34
전남대	58	12	70	50		50	120	299	36	335	250		250	585	5.16	3.00	4.79	5.00		5.00	4.88
전북대	37		37	37	6	43	80	191		191	205	21	226	417	5.16		5.16	5.54	3.50	5.26	5.21
제주대	18	2	20	18	2	20	40	100	5	105	122	3	125	230	5.56	2.50	5.25	6.78	1.50	6.25	5.75
중앙대	46	4	50			–	50	243	18	261			–	261	5.28	4.50	5.22				5.22
충남대	50		50	45	5	50	100	168		168	145	15	160	328	3.36		3.36	3.22	3.00	3.20	3.28
충북대	40		40	26	4	30	70	208		208	138	11	149	357	5.20		5.20	5.31	2.75	4.97	5.10
한국외대	27	3	30	20		20	50	99	9	108	95		95	203	3.67		3.60	4.75		4.75	4.06
한양대	95	5	100			–	100	510	25	535				535	5.37	5.00	5.35				5.35
합 계	939	65	1,004	934	62	996	2,000	4,572	297	4,869	4,553	262	4,815	9,684	4.87	4.57	4.85	4.87	4.23	4.83	4.84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201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5월 중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 전형 (모집군, 인원)	비 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 계 [합 계]	2 단 계 [합 계]	선 발 방 법				
				1단계	2단계			
강원대 [환경법]	40 (0/4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50점 • 어학성적 : P/F • 서류심사 : 50점 [합계 : 200점]	• 1단계 성적 : 200점 • 논술성적 : 5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35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2명 ('나'군)	• 비법학사 : 20명 이상 • 타 대학 : 24명 이상 • 지역인재 : 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33)250–6509
건국대 [부동산]	40 (40/0)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50점 • 어학성적 : 200점 [합계 : 650점]	• 1단계 성적 : 65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15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300% 이상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2명 ('가'군)	• 비법학사 : 1/3명 이상 • 타 대학 : 1/2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450–3109
경북대 [IT]	120명 (60/60)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면접 : 5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논술성적 : 30점 • 면접성적 : 7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7명 ('가'군: 3명 '나'군: 4명)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 지역인재 : 2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53)950–5452 입학 관리처 : 053)950–7092
경희대 [글로벌 기업법무]	60명 (60/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P/F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300점]	• 1단계 성적 : 3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4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가'군)	• 비법학사 : 21명 이상 • 타 대학 : 21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961–9218,9
고려대 [국제법무 (Global Legal Practice)]	120 (0/120)	• LEET성적 : 200점 • 학부성적 : 2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자기소개서 : 100점 • 논술성적 : P/F [합계 : 600점]	• 1단계 성적 : 600점 • 구술면접 : 100점 [합계 : 700점]	정원의 300% 이내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나'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3290–1428
동아대 [국제 상거래]	80 (40/40)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200점 [합계 : 600점]	• 1단계 성적 : 600점 • 서류심사 : ('가'군 : 200점, '나'군 : 10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가'군 : 100점, '나'군 : 20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군별 2명씩)	• 비법학사 : 28명 이상 • 타 대학 : 28명 이상 • 지역인재 : 2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51)200–8581 입학 관리과 : 051)200–6304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 전형 (모집군, 인원)	비 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 계 [합 계]	2 단 계 [합 계]	선 발 방 법				
				1단계	2단계			
부산대 [금융 · 해운 통상법]	120 (70/50)	• LEET성적 : 30점 • 학부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0점 [합계 : 60점]	• 1단계 성적 : 60점 • 자기소개서 : 20점 • 논술성적 : 10점 ('가'군만) • 면접성적 : ('가'군 : 10점, '나'군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특별전형 4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8명 (군별 4명씩)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 지역인재 : 2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51)510–1575 입학 관리과 : 051)510–1245
서강대 [기업법 (금융법)]	40 (21/19)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30점 • 어학성적 : 20점 • 자기소개서 및 기타 서류심사 : 20점 [합계 : 100점]	• 1단계 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2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2명 '나'군: 1명)	• 비법학사 : 14명 이상 • 타 대학 : 20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705–7833, 8790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150 (150/0)	『일반전형』 • 어학성적 : P/F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합계 : 200점]	『일반전형–2단계』 • 1단계 성적 : 200점 • 정성평가 : 50점 『일반전형–3단계』 • 면접 및 구술고사 : 50점 [합계 : 300점]	정원의 250% 선발	『2단계』정원의 150% 이내에서 선발 『3단계』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이상 ('가'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880–7539
		『특별전형』 • 어학성적 : 제한없음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정성평가 : 100점 [합계 : 300점]	『특별전형』 • 1단계 성적 : 300점 • 면접 및 구술고사 : 100점 [합계 : 400점]	정원의 300% 이내 선발				
서울시립대 [조세법]	50 (50/0)	• LEET성적 : 20점 • 대학성적 : 15점 • 어학성적 : 15점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70점]	• 1단계 성적 : 70점 • 논술성적 : 10점 • 면접 및 구술고사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특별전형 4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5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6490–5070
성균관대 [기업법무]	120 (0/120)	• LEET성적 : 25점 • 논술성적 : 1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0점 • 서류심사 : 15점 [합계 : 80점]	• 1단계 성적 – 80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20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나'군)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760–0922
아주대 [중소기업 법무]	50 (26/24)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20점 [합계 : 70점]	• 1단계 성적 : 70점 • 서면평가(논술포함) : 15점 • 대면평가 : 15점 [합계 : 1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2명 '나'군: 1명)	• 비법학사 : 15명 이상 • 타 대학 : 15명 이상	법전원 교학팀 : 031)219–1667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 전형 (모집군, 인원)	비 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 계 [합 계]	2 단 계 [합 계]	선 발 방 법				
				1단계	2단계			
연세대 [공공거버넌스, 글로벌 비즈니스, 의료과학 기술]	120 (0/120)	『일반전형』 • LEET성적 : 25점 • 대학성적 : 25점 • 어학성적 : 15점 • 서류심사 : 25점 [합계 : 90점]	『일반전형』 • 1단계 합계점수 : 90점 • 면접성적 : 1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25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나'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LEET 논술은 서류평가에서 고려함. • TOEFL은 IBT만 인정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TOEIC 은 인정하지 않음.	법전원 행정실 : 02)2123–3801
		『특별전형』 • LEET성적 : 25점 • 대학성적 : 25점 • 어학성적 : P/F • 서류심사 : 25점 [합계 : 75점]	『특별전형』 • 1단계 합계점수 : 75점 • 면접성적 : 10점 [합계 : 85점]	정원의 200~300% 이내 선발				
영남대 [공익인권법]	70 (35/35)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00점]	• 1단계 성적 : 70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0점 • 기타 [합계 : 1,0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군별 2명씩)	• 지역인재 : 20% 이상 각 군별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7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53)810–2693
원광대 [의생명 분야]	60 (30/30)	• LEET성적 : 4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20점 [합계 : 80점]	• 1단계 성적 : 80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나'군)	• 비법학사 : 22명 이상 • 타 대학 : 29명 이상 • 지역인재 : 12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3)850–5083 입학 관리처 : 063)850–5264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Gender법]	100 (0/100)	• LEET성적 : 60점 • 대학성적 : 40점 • 어학성적 : 30점 • 서류심사 : 50점 [합계 : 180점]	• 1단계 성적 : 180점 • 논술성적 : 10점 • 심층면접 : 10점 [합계 : 200점]	정원의 400% 이내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나'군)	• 비법학사 : 34명 이상 • 타 대학 : 3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3277–2733,4
인하대 [지적재산권, 물류법]	50 (25/25)	• LEET성적 : 250점 • 대학성적 : 200점 • 어학성적 : 100점 [합계 : 550점]	• 1단계 성적 : 55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0점 • 서류심사 : 15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60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각 군별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32)860–7913 입학 기획팀 : 032)860–9223
전남대 [공익인권법]	120 (70/5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논술성적 : 50점 • 면접성적 : 5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12명 ('가'군)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 지역인재 : 2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2)530–2208 입학과 : 062)530–4738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 전형 (모집군, 인원)	비 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 계 [합 계]	2 단 계 [합 계]	선 발 방 법				
				1단계	2단계			
전북대 [동북아법]	80 (37/43)	• LEET성적 : 30점 • 학부성적 : 15점 • 어학성적 : 10점 • 서류심사 : 10점 [합계 : 65점]	• 1단계 성적 : 65점 • 논술성적 : 15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나'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지역인재 : 1/5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3)270–2661 입학 관리과 : 063)270–4744
제주대 [국제법무]	40 (20/20)	• LEET성적 : 25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5점 [합계 : 60점]	• 1단계 성적 : 60점 • 면접성적 : 40점 – 서류심사 : 40% – LEET논술 : 20% – 구술고사 : 40% [합계 : 1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지역인재, 경제적 배려대상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가/나'군)	• 비법학사 : 35% 이상 • 타 대학 : 35% 이상 • 지역인재 : 1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4)754–2991~2 입학 관리과 : 064)754–3994
중앙대 [문화법]	50 (50/0)	• LEET성적 : 100점 • 학부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6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820–5423~5
충남대 [지적재산권]	100 (50/50)	• LEET성적 : 12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30점 [합계 : 350점]	• 1단계 성적 : 350점 • 논술성적 : 20점 • 면접성적 : 40점 [합계 : 410점]	정원의 25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나'군)	각 군별 • 비법학사 : 21명 이상 • 타 대학 : 30명 이상 • 지역인재 : 10명 이상	입학과 : 1644–8433 법전원 행정실 : 042)821–8507
충북대 [과학기술]	70 (40/30)	• LEET성적 : 100점 – 언어이해 : 50점 – 추리논증 : 50점 • 학부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60점 [합계 : 360점]	• 1단계 성적 : 36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4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나'군)	• 비법학사 : 25명이상 • 타 대학 : 25명이상 • 지역인재 : 1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43)261–2615 입학과 : 043)261–3303
한국외대 [국제지역]	50 (30/20)	• LEET성적 : 2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 논술성적 : P/F [합계 : 500점]	• 1단계 성적 : 5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6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50% 이상	학사 지원팀 : 02)2173–2461~3
한양대 [국제소송, 지적재산 · 정보, 공익 · 소수자인권]	100 (100/0)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0점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80점]	• 1단계 성적 : 80점 • 논술성적 : 10점 • 면접성적 : 1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5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 타대학, 경제적 배려대상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가'군)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2220–2770 입학처 : 02)2220–0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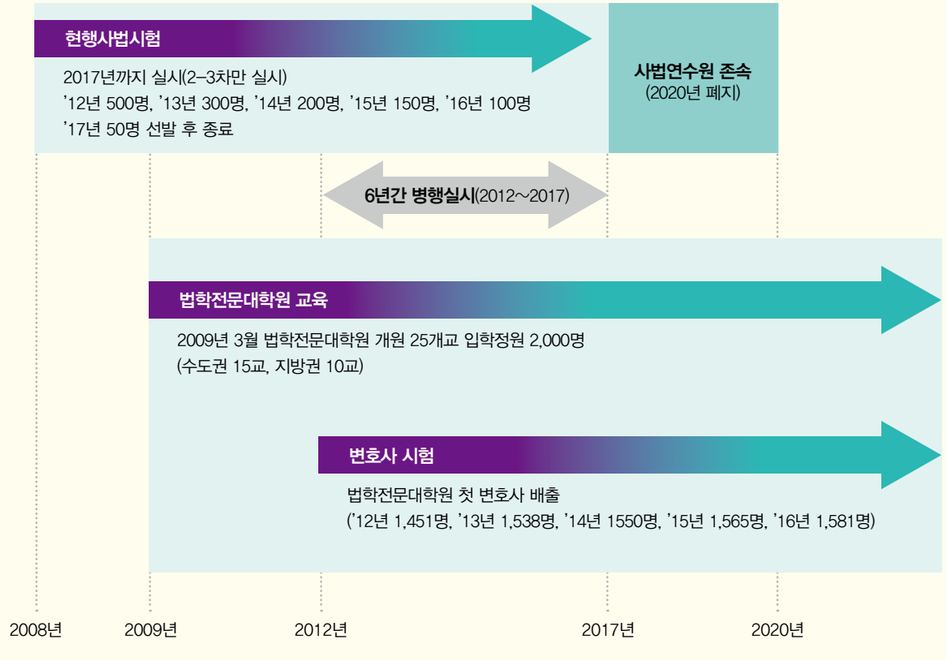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변호사시험법 [법률 제9747호, 2009.05.28. 제정]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2009.04.29.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참석위원 229명 중 찬성 167명, 반대 25명, 기권 37명]

- 사법시험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3년 동안의 논의 끝에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 사법시험은 2008년(법과대학이 폐지되기 전 마지막 입학) 입학한 학생에게 10년의 응시기회를 주고 폐지하기로 했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10년 전에 한 약속을 믿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시험 시행 경과표〉



- 정치권 등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면 법조사회는 양분되고, 대립과 갈등이 계속될 것입니다.
- 로스쿨을 통해서 국제화 ·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고 법률시장 개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에게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도와야 합니다.

2017년 폐지될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사시(司試)존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엊그제 국회에선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시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토론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새누리당 대표는 "그동안 사시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며 사시와 로스쿨 제도의 절충을 언급했다. 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로스쿨이 법조인 선발을 독점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 특권층이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시 존치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들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사시 존치 주장에 앞서 왜 여야가 사시폐지에 합의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시제도가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을 낳고, '사시 낭인'등 국가적 인력 낭비를 초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시 합격증은 우리 사회의 평생 특권 신분증으로 통한다. 국회가 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의 전관예우를 문제 삼으면서 정작 사시로 굳어진 법조계의 기득권을 못 본 척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사시 존치론의 논거는 한마디로 로스쿨의 비싼 학비가 신분상승을 막는다는 것이다. 변호사 공급이 늘어난 데 따른 법조계의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36%이고, 저소득층에는 국가 전액 장학금도 있다. 사시만이 '희망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부의 대물림'이란 이분법은 왜곡에 가깝다. 사시 준비생들이 기약도 없이 각자 부담하는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다.

사시를 로스쿨로 전환하는 것은 법조인의 '특권 신분증'을 누구나 요건을 갖추면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이 공급될수록 법률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다시 되돌려 특권 신분증을 살리자는 주장은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 한국경제신문 사설 2015.06.20

20대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中

황교안 국무총리, "사시 일부라도 존치하면 로스쿨 시스템 흔들려"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해 "사시를 일부라도 존치시킨다면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며 쉽사리 (예전 제도로) 되돌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사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황 총리는 "로스쿨이 처음 도입될 당시엔 걱정이 많았고, 저도 우려하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미 로스쿨이 도입이 된 상황"이라며 "단 50명이나 100명이라도 사시 출신 법관을 배출한다면 로스쿨 자체가 비정상화가 된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2016.07.05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